

한국불교 역사 담은 '사찰 인장' 조명

●송광사성보박물관 '삼보종찰 인장전' 발간

현대사회에서는 도장보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사인'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 문서 등에는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대신하는 상징이자 징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도사·해인사·송광사로 대변되는 삼보사찰(三寶寺刹)이 소장한 인장(印章)을 재조명,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를 담아낸 책이 발간됐다.

통도사·해인사·송광사 소장인장 70여점 한데 모아 조선초기 '불법승보' 조명...8월15일까지 특별전도



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과 상상장작소름이 발간한 '삼보종찰 인장전' 도록이다. 그동안 주요 문화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사찰 인장'을 주제로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삼보사찰이 소장한 인장들, 조선 세조(1457년) 때 만들어진 해인사 소장 '불법승보인'(佛法僧寶印), 당시 스님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을 한데 모아 엮었다.

책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불법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



조선 세조 1457년 제작된 해인사 불법승보 인장 동통

사 등 각 사찰의 인장과 유물장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총 70여점의 사찰 인장과 이들을 보관했던 목재·황동 소재 인장함, 상어피를 두른 인장함 등 다양한 공예적 특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인장유물이 사용됐던 책과 전적류를 비롯해 불상의 몸에 봉안했던 발원문과 상량문, 조선시대 소지와 호계첩, 포교사 임명장 등 각종 기록도 함께 담았다.

또 책에서는 해인사 '불법승보'(佛法僧寶) 인장이 조선 세조 때인 1457년 제작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면서, 제작시기가 밝혀진 조선초기 사찰인장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삼보사찰에 소장된 인장의 성격을 분석해 일제강점기 이른바 '31본말사 제도' 시행 전 이미 조선시대부터 수사찰(首寺刹)을 중심으로 한 수말사(首末寺) 제도가 시

행됐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도록 출간과 더불어 책에 수록된 유물과 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다. 오는 8월15일까지 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삼보종찰인장' 특별전이다.

집필에 참여한 김태형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은 "그동안 사찰 인장은 다른 문화유산에 가려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된 '삼보종찰인장전' 도록과 전시를 통해 한국 불교사와 사찰 인장의 중요성에 대한 단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송광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곳으로, 한국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물을 엄선한 상설전으로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 또한 제공한다. /최명진기자



▲해인사 불법승보 인장(왼쪽)과 해인사 불법승보인



각자의 온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

정지아 외 6인 '끌어안은 소설' 출간

가족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의 그물이다. 다른 공동체가 개인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만남에 기반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족을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할 뿐, 애써 그 의미나 가치 등을 찾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족



란 단어를 곱씹을수록, 이 단 두 글자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감정이 떠오를 지도 모른다.

가족을 테마로 한 단편 소설 7편을 엮은 '끌

어안은 소설'(창비교육판)이 출간됐다. 우리 시대가 사랑하는 작가 정지아, 손보미, 황정은, 김유담, 윤성희, 김강, 김애란은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시선에서 다양한 가족의 삶을 그려 낸다. 그리고 오늘날 가족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고, 독자들에게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모습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 그러하듯, 이 책 속 가족들도 각자 그 가족만이 안고 있는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 삶의 장면에는 희로애락에오욕 등 다

채로운 감정이 녹아 있고, 우리는 그 장면을 엿보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층위의 삶과 인간 간의 본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책이 그리는 가족의 삶에는 가족의 의미와 형태, 기능은 물론이고 가족의 갈등과 화해, 상실과 치유, 화합과 포용의 모습 또한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전통적 가족 형태를 대신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가능성과 확장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소박한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끌어안은 소설' 속 7편의 소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나아가 인간과 세계를 끌어안은 모습을 보인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느낌과 물음 사이=김을현 저자
김을현 시인의 세번째 시집 '느낌과 물음 사이'가 출간됐다. 무안 사거리반점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시인'으로 인간극장에 출연해 이목을 끈 김 시인은 배달용 소형 자동차를 몰고 눈독길, 발길 그리고 비탈길을 달리며 낭만과 서정을 담은 이번 시집을 써냈다. 시집은 '천 가지 질문', '물음표가 느낌표에게', '나에게로 또다시', '무의미의 의미' 총 4부로 구성됐다. 김 시인은 "느낌과 질문 사이는 호기심이다. 우리는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랑도 그리움도 빼앗기고 정처 없는 방향을 하게 될 것이다"며 "호기심이 길을 만들었고, 우리는 모두 선한 호기심을 갖고 있으니 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고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림·만원



▲역경이 새대기를 날려도 나는 씨익웃는다=김세영 저자
이삼십 대를 역경 종합세트에 보내야 했지만, 유쾌하게 뛰어넘는 휴수저청년의 분투기. 희귀병을 비롯한 네 번의 시련을 겪지만, 그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저자의 유쾌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위로한다. 때로는 눈물나게, 때로는 단단하게, 답답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향한 존중과 믿음을 놓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사랑하는 저자의 글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건강한 생각을 건넨다. 시종일관 위트 있고 빠른 호흡으로 독자들에게 하루를 지켜내는 용기를 일깨워 준다. /카리스·1만6천900원



▲일상이 고교학, 나 혼자 백자 여행=황윤 저자
이 책은 눈에 보이는 조선백자의 미(美)뿐만 아니라 미처 피우지 못한 잠재된 미(美), 제작 당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에 이르러 재평가받는 백자의 미감(美感)에 이르기까지 조선백자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감상자의 시각을 확장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백자에 깃든 '조선의 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세계사 속에서 한국 도자기의 의미를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책읽는고양이·1만9천900원



▲우정 도둑=유지혜 저자
우정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와의 연결을 뜻한다.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걸 도와준 고집스러운 서재 꾸리기, 가난 때문에 스무 번 넘게 이사했다는 사실이 상상되지 않을 만큼 밝게 웃어 보였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량한 진지함, 혼자 있음을 견디지 못해 연인과 꼭 붙어 지내던 작가가 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를 홀로 달리기까지 필요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을 배우고 그 자선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 땀과 있는 작가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쓴 에세이다. /늘·1만7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지방 지사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8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